

2026년 7월호 (제 259호)

# 소중한사람들

장마

천근 무게로 지고 있던  
어깨를 털며  
울컥!  
하늘이 울던 날

그동안  
꼭꼭 싸매어  
호르지 못한 것들이  
삼시간에 휩쓸려 올라간다.

가져다!  
부질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하라.

미움, 원망, 분노, 욕심  
사랑, 그리움...  
한꺼번에 뒤섞여 흐르는 동안

그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렇게 소리 내어 실컷 울고 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 택시기사

내가 그 분을 만난 것이 삼십 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의 손짓 하나 표정까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마치 내가 그 기도를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6개월 안에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갔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 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해야만 했다.

어려서부터 믿던 신앙생활은 남편과 시댁의 압박으로 할 수 없었고 삶은 설 새 없이 빗쟁이들에게 시달리니 당연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왔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요금은 두 배로 드릴 테니 청평댁으로 가요.”

그 한마디만을 뺀 나는 두 눈의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댁 푸른 물에 침병 빠진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기사님은 분위기를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한 마디도 없는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얼마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분이 어렵게 입을 떼었다.

“청평댁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 번 들어가서 한 시간만 앉아 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이거든 말씀하세요. 그 땐 청평댁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돼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 섰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이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달고 있으니 설교 소리도 한 마디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 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 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네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저의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저 같은 것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나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횡 하니 차를 몰아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 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분은 삼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웃의 걸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꿔 주는 일을 하게 한다. 오늘도 그 분은 하루 일당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마음속에는 온통 생명 살리는 일로 가득 차서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쁘게 뿔뿔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기사님은 이 세상 어떤 훌륭한 목사님보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완전히 변화시킨 목사중의 목사, 천사중의 천사로 살고 있다.

세상에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주님이 혹시 주님의 일만하라는데 자신이 세상일을 하고 있다면 큰일이라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일하는 곳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이다. 그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그 택시가 생명을 살리는 일터 교회가 되고 택시 기사로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는 종의 모습일 것이다.

주님은 그 택시 기사 같은 일꾼을 찾으실 것이다.

우리의 이웃들도 그 택시 기사 같은 주님의 진짜 종을 찾고 있다.

글/ 유정옥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낮은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딱 한 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소심한 복수요 예배를 빠지려고 11시까지 버티다가 5분쯤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것 같아 즉시 예배에 참석했던 날 말고는 예배 시간에 늦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군 시절 훈련병이나 이등병 때는 으레 몇 주는 빠지게 될 텐데, 저는 훈련병 때부터 교회에서 일하는 군중병으로 지목되었기에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예배 참석에 대해 항상 우선권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정작 자대 배치 받고는 군중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군 시절 수요일에도 거의 빠진 적이 없으니, 이렇게 은혜가 클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가면 간식도 먹고, 맛있는 주일 점심 식사도 하고, 관사에 계시던 장교 사모님들의 특식도 함께했으니, 저는 예배도 참석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삶을 군 시절에 마음껏 누렸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며 전도사 시절, 목사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례까지 받아가며 예배를 섬겼으니, 사실 예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옥에 갇힌 뒤 어머니와 첫 접견을 할 때, 제게 하신 첫 질문은 "이 목사님, 예배 잘 드리셨어요?"였습니다.

"나도 예배 잘 드렸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셨던지, 서울 구치소에서 드린 그 첫 예배에서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후에 서울 구치소에 예배를 인도하려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축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배를 집도하신 목사님께서

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축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중한사람들에서 노숙인과 암 환우와 함께 예배하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곳에 계셨습니다. 아마 이 앞줄 어딘가에 계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예배하실 때 많이 우셨다 하셨습니다. 꼭 여러분을 이 강단에서 보니 제 어머니 같습니다. 어머니가 참석한 예배처럼 최선을 다해 축도하겠습니다."

다들 아들 같은 사람이 진솔하게 고백해서인지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평생 예배를 인도하며 축도에서 성도들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6년 4월 초파일 즈음, 어머니와 함께 있던 분들은 많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성 구치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화성 구치소 여자 교도소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에 집도하시는 목사님이 30분이나 지각하시기도 하고, 예배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붉게 흐르는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7명이 함께하는 방에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 오시다. 함께 예배하던 이들이 모두 떠나면서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예배 파트너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침 나간 사람들 자리에 서울 구치소에서 온 두 명의 수감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은 서울 구치소에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읽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도서관에 넣어 달라하셔서 저 대신 송 선교사님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던 수감자가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구치소에서 같이 오신 또 한 분. 이 두 분은 제가 축도했던 그 예배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셋은 돌돌 뭉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이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옥에서 유정옥 사모와 지내는 지, 저에게 이 두 분 모두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저는 서울 구치소에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있었던 아무개입니다."

사실 저는 예배 말미에 축도한 것뿐인데, 제가 인도하던 예배라 하셨을 정도로 축도가 무척 각인이 되었나 봅니다.

오늘 접견을 하는데 어머니 표정이 밝았습니다.

"사실은 최근 어떤 여자가 우리 예배를 너무나 악랄하게 핍박했어. 심지어 교도소에 나나, 아무개 권사님을 거짓으로 고발하며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희생하기로 하고 다른 방으로 가겠다고 말하려고 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방으로 이전하면 막내가 되어 너무나 고생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어머니는 이런 고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두 영혼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견하기 바로 전, 그 여인이 오히려 다른 방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지켜주신단다!"

어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좋으신 걸까요? 저는 유리로 막힌 저편에서 해맑게 소녀처럼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보며 이렇게 대답하는 듯 합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아"

글 / 이성일

## 소중한사람들 서울역 암 환우 쉼터(Shelter) 이용안내



###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쉼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 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 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 물의정원 야외예배



▲ 물의정원 야외예배



▲ 사랑의 공동체



▲ 산딸기수확



▲ 성경1독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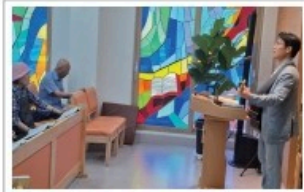
▲ 아침성경동독



▲ 아침제초



▲ 예배



▲ 예배



▲ 정문을 배경으로



▲ 취미활동



▲ 캘리그라피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배오경(폐암4기) - 1상 신약임상연구 약을 더 쓸 수 있게 하시고, 뇌전이 사라지게 하신 주님께서 종양 100%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2. 임오국(임파결암4기) - 5/29일 CT 검사 결과 암세포가 사멸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항암을 당분간 배보하고 합니다. 위암, 임파결암 완전해되어 전도자의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 이오진(신소암4기, 림프전이) - 표적항암제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4. 강오영(삼중음성 유방암, 뇌전이) - 김마니프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회복과 치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존에 있는 혹들도 사멸시켜 주옵소서
5. 서오순(유방암) - 지금까지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치료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고 완치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 최오진(자궁내막암4기) -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어렵고 힘든 순간 불안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치료 과정을 순차하게 마치게 하옵소서
7. 추오석(방광암, 폐암) -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8. 하오욱(자궁내막암) - 항암제가 잘 맞아서 모든 암 덩어리들이 싹 사라지고 아버지(방광암), 어머니(신장부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9. 이오욱(유방암, 흉선암) - 피부림프종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광선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속에 늘 임재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주도적 인 삶 살게 하옵소서
10. 김오중(협막암) -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리며, 주님께 받은 은혜 이웃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1. 남오범(위암) - 항암치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골수기능(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적혈구등)이 정상수치가 되도록, 항암부작용 특히 토하는 것과 메스꺼움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12. 황오자(폐암4기) - MRI, CT 검사에서 조금 붙어 있는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영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3. 김오길(다발성 골수종) - 항암치료 중에 있으오니 암세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중병명 받아 왔으니 다시 사역 현장에 돌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14. 남오자(폐암) - 5/4일 조직검사 결과 수술 후 깨끗하여 6개월 후 검사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음식 삼킬 때와 걷고 움직일 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하는데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15. 유오주(자궁경부암 4기) - 항암제를 새로 바꿨습니다. 항암제가 100% 잘 듣게 도와주시고 통증도 경감하여 주옵소서
16. 백오순(위암) - 위 허부쪽 절반을 절제했습니다. 전이나 재발없게 하시고 손발 냉증이 심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17. 김오금(방광암, 복막, 골반전이) - 5/27일부터 새로운 항암 연하투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 잘 견디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8. 김오금(당낭암) - 새로 시작한 연하투 항암으로 암세포가 사멸되고 완치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19. 송오수(위암) - 6/9 진료, 6/30 전신 뼈 검사와 CT 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 되고 확증되게 하옵소서
20. 장오순(유방암) - 원인 찾아 치료받기 원하며 림프종, 손발 붓짐, 무기력, 어지럼 등 부작용을 최소화 되고 임파선과 척추 뼈에 전이된 암 덩어리는 깨끗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21. 전오옥(유방암) - 갑상선 결절이 완전히 소멸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22. 김오서(핵종암, 전립선암) - 재발암은 7/6일 검사 후에 항암을 결정합니다. 부작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립선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3. 유오희(폐암) -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신속히 치료받게 하시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순직히 이어짐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 믿음의 손, 순종의 손으로 주님 손잡고 모든 의심 물리치고 강건하자는 영혼육이 되도록 하옵소서
24. 오오경(자궁내막암) - 장기유작이 심해서 개복수술은 안되고 항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부작용으로 식事を 잘 못하는데 가운데 종개가 사라지고 장무도 정상복귀 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약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http://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http://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2026년 6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 ●확장소망헌금●

김병식(100,000) 오분순(100,000) 임종국(1,500,000) 전두희(50,000) 최애진(50,000) 최정미(100,000)

### ●목적헌금●

남순자(2,600,000)

### ●천사헌금●

김병식(1,000,000) 장혜란(1,000,000) 박지현(1,000,000) 조주영(1,000,000) 유미주(1,000,000) 김기철(1,000,000) 유병희(1,000,000) 이은숙(1,000,000)

### ●심일조●

강모승(50,000) 김예중(50,000) 김홍덕(80,000) 남승범(360,000) 박선인(130,000) 박용범(480,000) 배윤경(70,000) 변영미(500,000)  
 심윤화(260,000) 오은경(300,000) 이상일(300,000) 이수미(1,000,000) 임종국(300,000) 최영자(140,000) 최은희(200,000) 홍원표(10,000,000)

### ●주일헌금●

김병식(60,000) 서미순(30,000) 최애진(100,000)

### ●감사헌금●

강금숙(10,000) 강신영(450,000) 강원봉(50,000) 고선하(30,000) 구만정(20,000) 권점옥(100,000) 기찬(20,000) 김계숙(50,000)  
 김기연(10,000) 김기철(120,000) 김명식(50,000) 김미희(150,000) 김병국(5,000,000) 김병식(1,000,000) 김보영(100,000) 김순금(300,000)  
 김순환(5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예중(150,000) 김와숙(100,000) 김유미(30,000) 김준(1,0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김홍덕(500,000) 남순자(100,000) 남승범(350,000) 단선화(50,000) 류병환(100,000) 문병숙(30,000) 박경수(100,000)  
 박광숙(100,000) 박봉희(330,000) 박선인(120,000) 박재숙(10,000) 박지현(50,000) 박진숙(20,000) 방은혜(100,000) 배윤경(600,000)  
 백선순(150,000) 백인아(10,000) 백현미(20,000) 변영미(100,000) 서강일(50,000) 서미순(410,000) 소한태(10,000) 송영수(150,000)  
 심은주(50,000) 심태영(100,000) 양경일(50,000) 양홍식(50,000) 연영희(20,000) 영애석(10,000) 오미경(100,000) 오은경(200,000)  
 오임순(20,000) 유미주(400,000) 유병희(100,000) 유영미(50,000) 이기철(100,000) 이명자,이은재(10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일(50,000) 이상복(10,000) 이은숙(100,000) 이계호(20,000) 이혜숙(50,000) 이해옥(300,000) 이희진(200,000) 임경남(10,000)  
 임정희(50,000) 임종국(1,000,000) 전대진(50,000) 전상희(100,000) 전선희(30,000) 전정옥(250,000) 정동익(30,000) 정숙(50,000)  
 정이연(50,000) 정종순(350,000) 조옥선(20,000) 조정덕(100,000) 조홍제(298,532) 최애진(100,000) 최영자(110,000) 최영희(10,000)  
 최은선(50,000) 최혜령(100,000) 추종석(5,300,000) 하성욱(100,000) 한창식(400,000) 한혜경(10,000) 황영자(300,000) 현성원(50,000)  
 황보순(100,000) 후원금(100,000)

### ●기관후원헌금●

LenaxWorldMission(3,010,300) 가락재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권오성의원(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왕솔약국(500,000)

### ●정기후원금(CMS)●

SNU.YWAM자매연합(132,000) 강자수(10,000) 공은영(30,000) 김민정(20,000) 김미희(20,000) 김성자(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민준(30,000) 김은집(30,000) 김인경(50,000) 김조(15,000) 김진일(5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효진(100,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희은(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성희(100,000) 박연정(10,000) 박원준(50,000) 박원희(30,000)  
 박재은(5,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필(10,000) 생안숙(250,000) 송연숙(50,000) 송필례(30,000)  
 양용석(30,000) 양윤정(30,000) 오선희(50,000) 유미희(10,000) 윤상근(20,000) 윤성록(50,000) 윤인초(10,000) 윤종순(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재화(3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귀례(1,000,000) 임성숙(30,000) 장선옥(1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장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일금(10,000) 정현영(50,000)  
 조남남(20,000) 조숙(10,000) 조영실(40,000) 최상(20,000) 최상(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한선주(2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 청평힐링센터 2026년 6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2,600,0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055,733
천사헌금	8,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623,288
확장소망헌금	1,900,000	식자재구입비	9,790,860
심일조	14,260,000	전기요금	2,916,680
감사헌금	24,148,532	합산보험료	1,775,500
CMS헌금	3,997,000	안전관리비	708,080
주일헌금	190,000	집기구입비	851,760
기관후원	4,210,300	급여인건비	17,113,890
		우편발송비	285,910
금월 수입 합계	59,505,832	지출 총액	36,121,701
전월 이월금	2,613,307		
총 수입 합계	62,119,139	금월 잔액	25,997,438

###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희(50,000) 전두희(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2월: 강정운(20,000) 김병식(100,000) 김재정(80,000) 박승호(100,000) 오분순(2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이혜옥(20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00,000)  
 3월: 임종국(1,300,000) 최영자(300,000) 오분순(300,000) 남승범(20,000) 총성(100,000) 확장헌금(50,000) 김병식(100,000) 전두희(50,000) 신은철(20,000) 최정미(100,000)  
 4월: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경주한빛교회(50,000) 오분순(500,000) 강정운(20,000) 총성(100,000) 이혜옥,송기승(172,000) 김병식(100,000) 전두희(50,000) 최정미(100,000)  
 5월: 경주한빛교회(50,000) 김병식(100,000) 김점숙(50,000) 오분순(500,000) 울산오복가정교회(100,000) 윤경선(50,000) 임종국(500,000) 전두희(50,000) 전주유원교회(250,000) 주남개감사(100,000) 최영자(200,000) 최정미(100,000)  
 6월: 김병식(100,000) 오분순(100,000) 임종국(1,500,000) 전두희(50,000) 최애진(50,000) 최정미(100,000)

\* 6월말 현재 총, 193,932,442원

###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6년 6월 씨앗헌금 후원 : 김옥경(1,000,000) 김행심(60,000) 이상숙(20,000) 이수미(100,000) 이순미(50,000) 장향자(200,000) 한종석(200,000)

2026년 6월 소나무헌금 지출: 남O범(724,800) 이O옥(451,500) 추O석(602,400)

###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 소중한 사람들에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미안마의 정세가 많이 불안하지만, 청소년 센터의 학생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기도후원, 재정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사람들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청소년 센터의 학생들은 1년의 정규 학교 과정을 마치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3월-5월 약 3개월 과정의 '드림 코리아 2026년' 씬머 스쿨을 준비해서 운영했습니다. '드림 코리아 2026년' 씬머 스쿨은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6시 반에 운동, 7시에서 8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어 공부,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점심 식사와 휴식, 2시 30분부터 4시까지 WORK DUTY 시간(센터안에 청소 등), 4시에서 7시 반까지 휴식과 저녁 식사, 7시 30분에 저녁 예배, 8시에서 9시 반까지 미안마어 공부와 수학 공부 시간을 갖은 후 취침으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WORK DUTY 시간에 넘어져 다치거나, 나무를 운반하면서 못에 떨어지거나 하는 작은 사고가 몇 건 있어서 놀라기는 했지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선교부 간사님들이 3개월 동안 '드림코리아 2026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드림 코리아 2026년'을 통하여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하루 참여해야 할 일정들을 빠지지 않는 훈련을 하여 시간 관리와 인내와 절제를 배웠고, 공부 잘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자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동 시간



식사 시간



예배 시간



공부 시간



WORK DUTY 시간



고기잡이



활동 시간



드림 코리아 2026년 수료식

지난 부활절에는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마을에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전에 마을 사람 100여명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서 대접하였고, 학생들이 춤, 노래를 선보이고, 게임, 마을 노래 자랑, 행운권 추첨 등을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과 교제하며 간접 전도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간접 전도로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연극



마을 행사

쌀 나눔

땀잔이라고 불리는 미안마의 새해는 4월에 있습니다. '땀잔' 기간에 열심히 물놀이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학생들이 트럭을 타고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하고, 저녁에는 노래 자랑, 장기 자랑, 노래 자랑,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땀잔'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귀히 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안마의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사들의 수준이 낮아졌고, 정치적인 불안함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학생들이 1년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녀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이상 교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와 간사님들이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 7월 2일 김동호, 조현정 드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그간도 평안하신지요?

감사

‘이예바’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비에따’가 여름 방학부터 성경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BD에서 온 난민 Young씨에게 또 그레이스가 화를 냈지만, 생사의 트라우마를 겪은, 세뇌의 영향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이도 없고, 불빛을 싫어할 만큼 눈도 어둡고, 걷기도 자유하지 못한 Young씨를 통해 “오직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간구

- 지타와 뿌리바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이슬람, 무교, 천주교등 다른 배경의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온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뜻을 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 7월 8-15일 벨나라 교회단기팀, 7월 21-29 일 고국 대학생 단기팀과 함께 극동 도시에서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벨나라 교회팀의 두 중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P2P(성결언약)순서도 있는데 모든 준비와 하오하오, 뷔엔뷔엔을 성별하여 주시길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기회들을 기대합니다. 대학생들의 연해주 역사의 현장을 따라 답사하며 기도하는 일정들 속에서 한반도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군들이 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 다니엘은 망막의 미세한 출혈로 눈에 비문이 보이는데 1년간 치료가 서서히 된다고 합니다. Young씨의 눈이나, 치아나 진료조차 볼 수 없는데 무엇보다 Young씨가 남한으로 이동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과, 보혈로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이뤄지며, 말씀을 공부하도록, 남한으로 이동 대기 중인 홍형제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도록, BD의 한 형제가 안전하며, 복음 안에 거하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에, 그리고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성장과 생업의 든든함을 위해 축복하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6년 6월 11일 다니엘과 그레이스 올림



안녕하세요. 멕시코 선교사 김형철입니다.

처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 드려서 죄송합니다. 멕시코 유카탄에서 20년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형철 선교사입니다. 멕시코 선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경께서 인도 하실 줄 믿습니다.

A.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 드립니다.

- 로고스 신학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며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 2012년 설립되어 성경 연구원, 학부, 대학원 과정의 신학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로 390명의 졸업생과 313명의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9개주 32개 클래스가 있으며 페루에 3개 주에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 모든 재학생에게는 무료로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은 선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유카탄 주 각 거점 지역 마을에 교회 안에 방과 후 학교를 세워서 어린이 성경교육, 인성 교육, 학습 도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사태 이후 어린이 주일학교가 약화되어 학생들이 줄어서 어린이 전도 활성화회 위해 지역 교회 안에 훈련된 교사가 말씀교육과 학업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카탄의 지역 특성상 도시화보다는 소규모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점이 되는 지역부터 시작되어 증가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각 학교별 로 교재와 교사 교육과 250불의 교사 사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5년 내에 20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 현재 유카탄 지역에 4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유카탄 및 치아파스, 와하카의 저소득층, 반군과 마약상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사역자 훈련, 전도자 훈련을 통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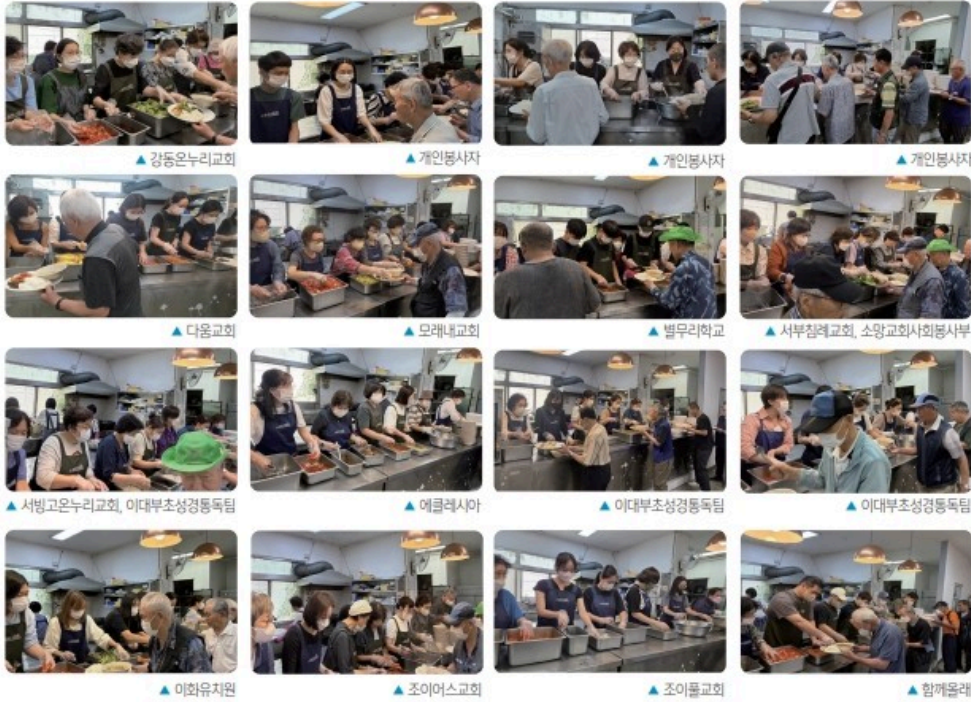
B. 소중한사람들 단체 성격 상 지원하는 선교비의 사용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자면

- 방과 후 학교가 세워진 마을의 학생들에 대한 1:1 네트워킹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빈곤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사용
- 치아파스, 와하카의 지역상 왕래가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의 어린이 빈곤에 도움을 주고 복음화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 페루 아마존 지역의 극빈 어린이 도움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모들의 소득 활동을 위해 평상시 관심 밖에 있는 극빈 어린이 밥상 공동체(1일 1끼)지원비로 사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하나님의 사랑이 땅 끝 까지 전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소중한사람들로 섬기는 귀한 뜻이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형철 드림

# 소중한사람들 교회



##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9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대부속초등교 학부초성경동독팀(2일,16일,23일,30일), 서부침례교회(6일), 소망교회사회봉사부(6일), 조이플교회(8일), 조이어스교회(11일), 에클레시아(13일), 서빙고온누리교회(16일), 별무리학교(18일), 다움교회(19일), 함께올래(20일), 이화유치원(25일), 강동온누리교회(26일), 모래내교회(27일)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권미조, 김영옥, 김진숙, 박대근, 박봉희, 박은순, 박진희, 송경옥, 송홍렬, 심지현, 이소영, 이은영, 이향자, 임윤엽, 전두희, 최경희, 최금련, 홍은영,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상훈, 홍지영, 기정아, 이지영, 허정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일 이성일,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성웅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몸과 영혼 치유 사역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 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사전 예약 필요 없이 토요일에 오면 누구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6월 13일**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소중한사람들로 달려와 12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3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15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6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하 5-9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이분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 중보기도 제목

#### 1. 소중한사람들 서울 노숙인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누기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 2. 소중한사람들 청평 암한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 3. 진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

교야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파,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 4. 치유 - 이혜옥, 배윤경, 김덕경, 김순금, 임종중, 이희진, 송영수, 강신영, 서미순, 정준수, 김예중, 남승범, 정장중, 김병식, 추종석, 황명자, 최애진, 김기월, 오미경, 남순자, 유병희, 하성옥, 이은숙, 백선순, 유미주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민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우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말리, 김지연, 유희광, 조규철, 이병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의 병장자, 박철민, 서종열, 박지현 다시는 암이 재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신항진님 근육수축증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 다양한 봉사 참여

###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해주신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이삭희42기
- \* 12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24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해 주신 이미용 봉사팀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신 서부침례교회, 에클레시아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을 나눔을 준비해 주신 개인 봉사자
- \* 음향장비 최적화를 도와주신 김영준님

모두 감사합니다



▲ 서울역광장전도 및 물품나눔



▲ 서울역광장전도 및 물품나눔



▲ 서우침례교회 특송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우편물제작 지원



▲ 에클레시아 특송



▲ 선한목자병원 이창우원장님 노숙인무료진료



▲ 에클레시아42기 소식지작업 지원



▲ 후원물 나눔



▲ 후원물 나눔



▲ 소중한찬양단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화악악회 찬양전도



▲ 이미용 봉사

## 후원물품

- \* 빵을 후원하신 예수왕기교회 박명자 전도사님, 황귀용님 \* 육개장사발면을 후원하신 무명님
- \* 구디백을 후원하신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소망교회 사랑나눔부 \* 소고기를 후원하신 (주)하나
- \* 바나나를 후원하신 에클레시아, 다움교회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영욱님 \* 파프리카를 후원해주신 이소영님
- \* 철원쌀을 보내주신 무명님 \* 야채와 채소를 후원하신 박진희, 박용식, 이\*후님 \* 빵배로를 후원하신 무명님
- \* 파스타면을 가져다주시길 김빛교회 \* 비누를 만들어오신 별무리학교 \* 잣술을 후원하신 무명님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6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일	김영욱	커피	9박스	매주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2일	이소영	파프리카	1박스	3일~	금식	노숙인
4일	무명	육개장사발면	4박스	7일	나눔	서울역광장전도
4일	(주)하나	소고기	8박스	5일~	금식	노숙인
4일	(주)하나	돼지고기	9박스	5일~	금식	노숙인
5일	박진희	야채상추	2박스	6일~	금식	노숙인
8일	무명	찰밥	400kg	9일~	금식	노숙인, 청명암원우
10일	박용식	비트	1박스	11일~	금식	노숙인
11일	황귀용	단발빵	8박스	12일, 14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전도
11일	박용식	감자	4박스	12일~	금식	노숙인, 청명암원우
11일	박용식	마늘	4박스	12일~	금식	노숙인, 청명암원우
13일	에클레시아	바나나	2박스	15일	금식	노숙인
13일	박진희	상추,부추	1박스	15일	금식	노숙인
17일	무명	잣술	100개	18일	나눔	노숙인
18일	예수왕기교회의 박명자	빵	3박스	18일	나눔	노숙인
18일	별무리학교	비누	1박스	18일	나눔	노숙인
19일	다움교회	바나나	2박스	19일	나눔	노숙인
20일	김빛교회	파스타면	66봉지	21일~	금식	노숙인
22일	소망교회의 사랑나눔부	구디백	120상자	23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전도
23일	이대부초성경동독팀	구디백	100인분	23일	나눔	노숙인
25일	박진희	야채	3박스	26일~	금식	노숙인
26일	(주)하나	돼지고기	9박스	27일~	금식	노숙인
28일	무명	빵배로	10박스	28일	나눔	노숙인, 서울역광장전도
30일	이*후	양파	1박스	7월1일~	금식	노숙인
30일	(주)하나	소고기	8박스	7월1일~	금식	노숙인



- ▲ 노아 돼지고기 5박스 후원
- ▲ 이소영 파프리카1박스 후원
- ▲ 무명 육개장사발면4박스 후원
- ▲ 하나로소고기9박스 후원
- ▲ 박진희 야채상추 2박스 후원
- ▲ 무명 쌀400kg 후원
- ▲ 박용식 비트박스 후원
- ▲ 황귀용 단발빵8박스 후원
- ▲ 박용식 감자박스 후원
- ▲ 박용식 마늘4박스 후원
- ▲ 에클레시아 바나나 후원
- ▲ 박진희 상추부추박스 후원
- ▲ 무명 찰밥 100개 후원
- ▲ 별무리학교 비누 박스 후원
- ▲ 다움교회 바나나2박스 후원
- ▲ 김빛교회 파스타면66개 후원
- ▲ 소망교회/사랑나눔부 구디백2박스 후원
- ▲ 소망교회/사랑나눔부 구디백2박스 후원
-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구디백2박스 후원
- ▲ 박진희 야채 후원
- ▲ 노아 돼지고기5박스 후원
- ▲ 이\*후 양파1박스 후원
- ▲ 하나로소고기9박스 후원
- ▲ 김영욱 커피 1000인분 후원
- ▲ 무명 빵배로10박스 후원
- ▲ 예수왕기교회 전도사님 빵박스 후원

# 2026년 6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GBP(100,000)	강금내(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영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수(10,000)	강지현(10,000)	강현미(20,000)
강화관(10,000)	고건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삼미(10,000)
구남진(20,000)	구중혜(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화(30,000)	김경희(10,000)	김광찬(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영(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영(50,000)	김동영(1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미화(20,000)	김미화(2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연옥(10,000)
김영성(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옥례(10,000)	김옥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숙(10,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재정(8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나(5,000)	김행은(10,000)	김향순(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정(3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주열(10,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성림(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록(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운(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상진(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연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재용(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저은미)(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선(20,000)	서기준(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희(30,000)
성기빈(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30,000)	신승우(40,000)	신영주(1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경(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선옥(10,000)	유성목(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완(10,000)	윤용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희(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희(30,000)	이경희(50,000)	이공미(10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복(20,000)	이상삼(50,000)	이상진(2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희(20,000)	이예린(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익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재동(저은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수(1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30,000)	이찬희(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순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민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경(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정원(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희(10,000)	최경선(2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유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서원(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유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 팩스 031-582-0199
  - 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http://www.ppp.or.kr)
  - 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X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 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일반헌금계좌는 농협 351-7195-3045-83 으로 하시면 됩니다**
  - 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mailto: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t224@hanmail.net](mailto:sit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b>해외고아 1:1 결연 (4만원)</b> <input type="checkbox"/> 미안하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금액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http://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http://www.pphealing.com)